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확보 ·시설물 점검

오동연 기자 | 승인 2026.04.26 15:29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주은규)는 지난 24일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과 농업용 관정 주요시설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진지사는 당진지역 1만6589ha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 당진, 아산, 예산, 홍성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삽교호를 주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운정양수장에서 대수로인 당진용수간선(34.8km)과 우강 용수간선(10.3km)에 양수를 하고 간선의 2단 양수장 19개소와 3단 양수장 4개소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호·석문간척지 일부를 제외한 당진지역 전체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당진지사는 올해 초부터 각종 수리시설 점검과 정비, 용·배수로 준설 등 시설 유지관리와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진지사 관계자는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자동화 물관리시스템(TM/TC 등)을 활용해 적정한 용수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영농기 농업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오동연 기자 viseo@dynews.co.kr



오동연 기자 viseo@hanmail.net